

인화성액체를 불이 붙어있는 땔감에 붓던 중 화재·폭발

재해개요

2019.02.08.(금) 08:43경 ○○산업(주) 내 야외 골재장 뒤편에서 불을 피우기 위해 땔감에 불을 붙이다가 불이 잘 붙지 않자, 플라스틱용기(20L)에 들어있는 유기용제를 부어 불을 키우는 중에 불이 플라스틱용기 안으로 역류하여 플라스틱용기가 폭발하며 재해자 옷에 불길이 옮겨 붙어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·치료하였으나 2019.02.20.(수) 09:45경 사망한 재해임.

현장사진

재해재가 땔감에
유기용제를 부어
불을 피운 장소



<재해 개요도>

재해발생원인

- 직접원인
 - 인화성이 높은 유기용제를 불에 직접적으로 부어서 폭발로 이어짐.
- 간접원인
 - ① 위험물의 보관 미흡
 - 인화성액체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작업장 내부에 비치함.
 - ② 위험물의 관리 미흡
 - 인화성액체가 들어있는 플라스틱용기 MSDS 경고표지 미부착.

재해예방대책

- 인화성이 높은 유기용제를 불에 직접 붙지 않도록 관리 철저
- 위험물에 대한 보관관리 철저
 - 위험물의 성질을 고려하여 위험물보관창고 등에 보관하고 위험물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자의 입회하에 위험물을 사용하도록 조치.
- 인화성액체가 들어 있는 용기에 MSDS 경고표지 부착
- 화기사용 장소 주변에 소화설비(소화기 등)비치 및 근로자 교육 실시